

- 주요 뉴스: 미국 11개 대형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원 위해 300억달러 제공
 - 미국 3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감소, 견조한 노동수요 지속 시사
 - ECB,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0.50%p 인상. 은행권 불안 해결 기대가 반영
 - EU, '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출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지역은행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8%],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1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원 및 기술주 강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강세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 금리인상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영향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0.50%p 금리인상 등으로 16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299.5원, -13.5원) 0.8% 하락, 한국 CDS 하락

		3/16일	3/15일	전일대비			3/16일	3/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60.3	3,891.9	1.76%	국채 금리 10y	미국	3.58%	3.45%	12bp
	유럽	441.64	436.45	1.19%		독일	2.29%	2.13%	16bp
	중국	3,226.9	3,263.3	-1.12%		영국	3.43%	3.32%	10bp
	일본	27,011	27,229	-0.80%	CDS 5y	한국	42bp	44bp	-2bp
	한국	2,377.9	2,379.7	-0.08%		중국	79bp	82bp	-3bp
환율	달러지수	104.44	104.65	-0.20%	위험 지표	EMBI+	-	430	-
	유로화	1.0610	1.0577	0.31%		VIX	22.99	26.14	-12.05%
	엔화	133.74	133.42	-0.24%		WTI유	68.35	67.61	1.09%
	위안화	6.8980	6.9063	0.12%	원자재	구리	388.1	385.7	0.64%
	원화	1,313.0	1,303.7	-0.71%		금	1,919.5	1,918.6	0.0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개 대형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구제 위해 300억달러 지원

- 미국 11개 대형은행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구제를 위해 300억달러를 투입. JPMorgan, 씨티그룹, BofA, 웰스파고는 각각 50억달러를 제공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25억달러를 지원. 이 외에 US뱅크, 트루리스트파이낸셜, PNC 파이낸셜, 스테이트스트리트, 뉴욕멜론은행 등은 10억달러 공급
- 공동으로 마련된 300억달러는 퍼스트리퍼블릭에 비보호 예금으로 120일 동안 예치되고, 지원에 참여한 은행들은 다른 예금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예정. 11개 은행은 공동성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발표
- 이번 결정은 경쟁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한 이례적 사건. 연준이 아닌 은행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뱅크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위기가 끝났음을 의미(Odeon Capital의 Dick Bove)
-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미국 금융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 또한 예금자 보호 조치는 미국 은행시스템 신뢰 강화를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었다고 언급
- 이에 앞서 유럽에서는 스위스중앙은행이 Credit Suisse에 500억스위스프랑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고, 이 또한 은행권 우려 완화에 일조. 다만 일부에서는 스위스중앙은행의 지원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제기(JPMorgan)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3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감소. 견조한 노동수요 지속 시사

- 3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9.2만건으로 전주 대비 2만건 감소했으며, 예상치(20.5만건)도 하회. 견조한 노동시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나 최근 은행권 불안 등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한편 2월 주택착공 및 건설허가건수는 모두 전월비 증가(각각 132.1만→145.0만, 133.9만→152.4만). 이번 결과는 향후 주택경기 안정 가능성을 의미

■ 골드만삭스, 1년 이내 미국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은행권 위험 등으로 상승

- 안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권 불안을 고려 시 미국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25%→35%) 분석

■ ECB,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0.50%p 인상. 은행권 불안 해결 기대가 반영

-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인 리파이낸싱금리(3.00%→3.50%), 한계대출금리(3.25%→3.75%), 수신금리(2.50%→3.00%)를 이미 예고한대로 0.50%p 인상한다고 발표.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제시
- 최근 일부에서는 은행권 불안 등으로 ECB가 금리인상 중단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 하지만 이날 라가르드 총재는 은행들의 건전성이 '08년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하다고 언급하면서 0.50%p 인상의 배경을 설명

■ EU, '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 65% 이하로 낮출 방침

-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 이에 따르면, '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 전략적 원자재의 경우 최소 10%를 연내에 공급할 계획. 이번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 현재 그린산업제품 생산에서 일부 원자재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90%를 상회

■ 중국 2월 신규주택가격, '21년 7월 이후 최대폭 상승. 경제활동 재개 등이 영향

- 2월 신규주택가격은 전월비 0.3% 상승하여 1월(0.1%) 수준을 상회. 다만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1.2%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내림세. 이번 결과는 경제활동 재개 및 당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 노력 등에 기인

■ 사우디와 러시아, 원유가격 안정을 위해 회동. 감산 기조를 확인

- 사우디의 압둘라지즈 빈 살만 에너지장관과 러시아 노박 총리는 원유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 특히 현행 OPEC+의 감산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5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유럽 은행시스템, Credit Suisse 사태로 취약성이 다시 부각될 소지 - Financial Times (Market tremors test European Banks once more)

- 유럽 은행시스템의 엄격한 규제 등을 감안하면 Credit Suisse(CS)는 미국 지역은행보다 안전하다는 추론이 가능. 또한 스위스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CS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도 연출
-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변하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이 발생. 특히 유럽 은행시스템의 경우 위기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을 선택하기보다 '규제 불가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여 위기를 키울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CS 사태가 작은 위기에 그친다면 유럽 은행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나, 큰 위기로 전개되면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

■ 미국 지역은행 관련 우려,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 - 블룸버그

(Move Along, There's No Crisis to See Here)

- 최근 일부 지역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부각되면서 관련 우려가 증폭. 그러나 금주 S&P1500 지역은행지수의 하락 폭은 제한적. 또한 장부상 자산 가치를 고려할 경우 KBW 은행지수에 포함된 대형은행들의 밸류에이션도 '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크게 상회. 유럽계 은행들 역시 미국계 은행과 비슷한 상황
- *TED 스프레드 또한 하향세를 나타내 은행의 유동성 여건이 양호함을 시사. 아울러 소형은행의 현금보유 규모가 감소하고 대출상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전히 위기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주의가 요구

* TED 스프레드: 미국 국채 3개월물 수익률과 리보(LIBOR) 간 차이. 스프레드 증가는 단기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

■ Credit Suisse 문제, 금리인상 속도의 중요성을 시사 - Financial Times

(Credit Suisse: chaos means slow rate rises and simpler rejig are needed)

- 카오스 이론에서 유래된 나비효과를 적용하면, 미국 일부 지역은행의 파산은 스위스 은행권에도 영향. 이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리스크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리정책을 신중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
- 채권가격 큰 폭 하락의 여파가 작지 않기에 대규모 예금인출이 지속될 소지. 이에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의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

■ **일본은행, SVB 사태 고려 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필요 - 블룸버그**

(Somewhere in the Multiverse, SVB could be the BOJ)

- 일본 경제는 SVB와 같이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 특히 일본은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익숙한 만큼 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함이 요구
- 일본은행은 '00년과 '07년에도 금리인상을 시도했으나 글로벌 금융불안과 맞물리며 결국 실패. 현재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08년만큼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 또한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지 않는 상황이 25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기에, 일본에도 SVB 사태처럼 예견하지 못한 위험이 감춰져있을 가능성 존재

■ **미국, 중소은행 대출기준 강화 등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From 'no landing' to crash landing?)

■ **연준의 고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 블룸버그**

(A Year In, the Federal Reserve's Scramble Is Looking Costly)

■ **ECB의 금리인상, 은행권 영향 고려한다면 정책 오류일 소지 - 블룸버그**

(ECB Risks Policy Error by Hiking Into a Banking St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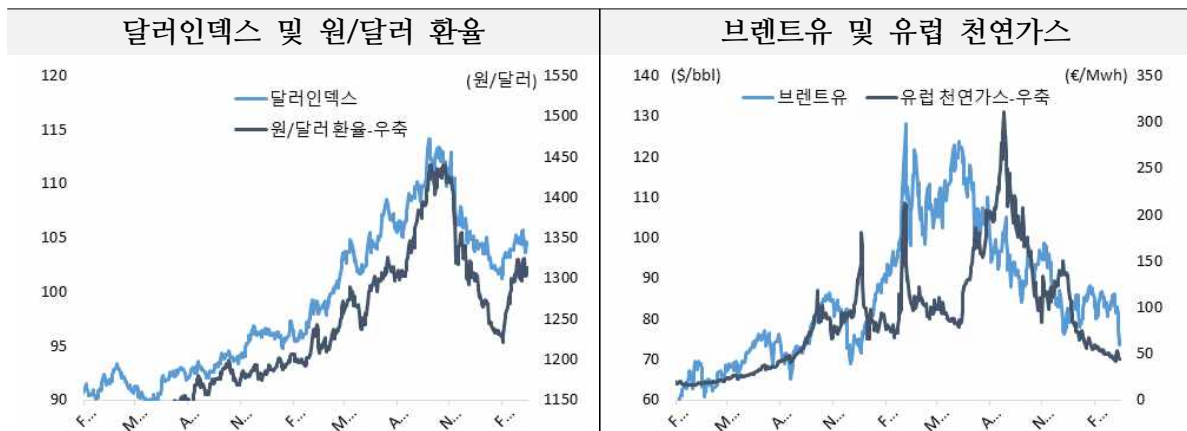
■ **최근 일본 엔화의 강세, 은행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기인 - 블룸버그**

(Yen Demand Catapults as Banking Crisis Wrecks US, Europe Have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